08-11-2026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옴 샨티 **1971/10/18**

(디파발리 축제에 즈음하여 아비약트 밥다다가 들려주시는 다정하고 고귀한 특별한 말씀들)

딥말라는 살아있는 디파크(등불)들의 염주들에 대한 기념비다.

오늘 밥다다는 무엇을 보고 있겠느냐? 그는 너희 등불들로 엮인 염주를 보려고 왔다. 사람들은 딥말라의 날을 기념일로 축하하지만, 밥다다는 살아있는 등불인 너희들의 염주를 보고 있다. 너희들 모두가 딥말라의 날에 밝혀진 등불들을 볼 때, 그것들을 보면서 너희의 기념일이 축하되고 있다는 행복함을 느끼느냐? 점화된 등불이 무척 사랑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기념비가 축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이 세계의 아버지와 온 세상 전체의 영혼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살아있는 형태인 기념비를 보려고 왔다. 염주에는 구슬이 하나만이 아니다. 염주는 여러 개의 구슬들로 만들어진다. 만일 어딘가에 스스로 불이 켜진 등잔이 단 하나만 있다면, 그것이 등불들의 염주라고는 불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점화된 등불들은 염주의 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너희들 각자는 스스로를 디파크의 염주에 꿰인 점화된 등잔불이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점화된 여러 개의 등불로 엮인 염주를 보는 것이 즐거우냐? 오늘 딥말라(디왈리)의 날에 너희 모두가 디파발리를 축하했느냐? 너희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디파발리를 축하했느냐? 사실 너희들은 한결같이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지만, 특별한 기념일에는 너희 특별한 영혼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특별한 방식으로 도구가 된 특별한 너희 영혼들은 무슨 봉사를 해야 하겠느냐? 특별한 영혼들은 특별한 과업을 수행해야지,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은 하지는 말아야 된다. 다른 영혼들이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을 특별한 영혼들이 똑같이 한다면, 도대체 특별한 영혼들이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 특별한 영혼들은 특별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특별한 날이면 밥다다는 세 가지 방식으로 자녀들과 신봉자들에게 봉사한다. 특별한 영혼들은 자기들의 기념일에는 특히 비전을 주는 형상이 되어서 영혼들에 대한 자비로운 느낌을 갖고, 밥다다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적인 사랑의 모습과 미묘한 힘으로 영혼들을 실질적으로 채워줘야 한다. 밥다다는 아비약트의 형상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 모두에게 봉사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밥다다가 자기들과 만나고 있으며 그들의 기억에 응답해 준다고, 또는 자기들이 기억의 실질적인 결실을 경험한다고 느낀다. 심지어 신봉자들도 자기들을 사랑과 믿음의 느낌으로 채워주고 있음을 경험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다.

마찬가지로 너희 특별한 영혼들은 너희의 아비약트 단계와 영적인 빛과 힘인 너희 단계로 한 장소에서 등대이며 발전소가 되어, 알로킥하게 영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자세와 느낌으로 모든 곳에 봉사해야 한다. 이것을 무한한 봉사라고 한다. 너희의 백성들과 너희의 신봉자들이 이 기념일에 특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라. 일시적으로 주술적인 힘을 가진 이들은 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신봉자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 특별한 영혼들이 너희의 빛과 힘으로 하는 봉사에 대한 경험을 너희의 백성들과 신봉자들에게 줄 수 없겠느냐? 따라서 그런 특별한 기념비인 날들이 왔을 때는 특별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특별한 봉사를 경험하게 해주어라. 너희들은 그런 봉사를 했느냐? 앗챠, 그것은 봉사라는 측면에서였다. 디파발리 당일에 너희는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느냐? 오늘 너희는 영혼인 너희가 내면에 갖고 있는 산스카라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느냐? 이것의 기념비가 오래된 잔고를 끝내는 것이었으니, 너희 영혼들은 틀림없이 실제적인 형태로 그것을 이미 행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기념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니 오늘 심지어 과거의 아주 사소한 산스카라라도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잔고들을 끝낼 것이냐? 잔고들을 끝내기 전에 너희는 그것들을 체크해서 결과를 보아야 한다. 너희 모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록부를 체크했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노력을 지속해왔든, 그것에서 어떤 퍼센티지로 어떤 측면에서 성공의 화신이 되었느냐? 제일 먼저 너희 마음속의 생각을 체크하고, 그 다음 너희의 기록부를 체크해라: “완전히 고귀한 생각을 가지려는 데서 나의 노력은 어느 정도로나 성공했는가?” “말로는 내가 어느 정도로나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했으며, 몇 영혼이나 사랑하며 협조하게 만들 수 있었지?” “내 말 속에는 어느 정도로나 영성, 독특함, 유인력이 깃들어 있었나?” “행동에서 나는 어느 정도로나 변함없이 사랑스러우며 초연하고 알로킥하면서 특별할 수 있었는가?” “행동에서 나는 어느 정도로나 카르마 요기였으며, 요그육트하고 육티육트하며 스네육트(사랑으로 충만한) 했는가?” “나의 산스카라와 내 모습에서, 즉 얼굴로 나는 어느 정도로나 아버지처럼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우면서 협조적이었는가?” 이런 식으로 너희의 기록부를 체크함으로써, 너희는 아직까지 그 어떤 결함이나 약점이 남아 있더라도 그것들을 다 끝내고, 새로운 계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의 기록부를 체크해라.

이것이 디파발리를 축하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그것을 축하한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해지려는 결단력 있는 생각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식으로 디파발리를 축하하거나 또는 너희가 만나는 것을 그저 축하만 했느냐? 만남을 축하하는 기념비는 염주의 형태이지만, 결단력 있는 생각의 기념비는 점화된 등잔불의 형태다. 그러니 너희는 양쪽 방식 모두로 축하했느냐? 너희는 새 옷을 입었느냐? 영혼은 무엇을 토대로 새로운 의상을 받느냐? 각 영혼은 자기의 산스카라를 기반으로 그것을 받는다. 각 영혼의 의상은 그의 산스카라를 기반으로 준비된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새로운 의상 또는 새 옷을 입을 것이냐? 새로운 시대의 산스카라를 익히거나, 새로운 시대를 수립하는 분인 아버지와 똑같은 산스카라를 익히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너희가 물리적으로 새 옷을 몇 벌이나 입든, 심지어 이 오래된 세계의 새로운 사물들도 새로운 세계의 사물들에 비하면 낡은 물건들과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가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만일 너희가 새 옷을 입는다 해도, 그것은 새롭다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은 오직 사토프라단한 세계에서 뿐이다.

타모프라단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오래되었고 무미건조하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들을 새롭다고 부를 것이냐? 그래서 새 옷이란 영혼인 너희가 내면에 새로운 산스카라와 고귀한 산스카라를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 외에 너희가 무엇을 더 하겠느냐? 너희들이 새로운 산스카라를 익히고 나면, 그때는 너희의 기록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이 다시 새롭게 색칠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기록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새로 칠한다는 뜻, 즉 청결함을 가진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새로 칠할 때, 흙먼지와 병균들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기록부는 점검할 때면, 너희의 모든 약점은 자동적으로 끝날 것이다. 너희들은 서로 무슨 다정한 말을 교환할 것이냐? 디파발리에 너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너희는 서로 어떤 특별한 선물을 나눌 것이냐? 너희는 서로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뭔가를 가졌느냐? (사랑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어차피 항상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면 오늘은 특별한 사랑을 가질 것이냐? 너희들은 사랑하고 있으니 이 사랑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시인 이 친밀한 가까움은 딥말라(등불로 엮은 화환)라고 불린다. 특별한 날 너희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에서 달성한 쉬운 성공이나 너희가 이 지식의 보석들 중 무엇을 경험했든,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쉽게 경험을 얻고 다른 이들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특히 그것을 서로에게 주어야 한다. 이해가 되느냐? 아버지에게서 왔고 너희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 역시 그것에서 특별히 경험을 갖게 만든, 이 지식의 보석이라는 보물들을 서로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특별한 선물이다. 그것이 영원한 기념비가 될 그런 선물을 너희는 서로에게 주어야 된다. 그런 보석들을 다른 이들에게 줄 때, 그 영혼들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틀림없이 너희가 그들에게 준 보석들도 항시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다른 이들을 항상 충만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디파발리를 축하하고 영혼들에게 고귀한 봉사를 하는 고귀한 영혼이 되어라.

오늘날 모든 영혼들은 부를 갈구한다. 그렇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것을 가지면 그들이 결코 부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그런 영적인 부를 주어라. 누가 부를 달라고 청하느냐? 거지들이다. 오늘날 영혼들은 거지들이다. 그들은 왕족 같은 거지라고 불릴 수 있다. 어떤 영혼이 재물을 수백만 배로 가졌어도, 그들 모두가 여전히 거지들이다. 그런 거지 영혼들을 구걸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어라. 이것이 무한한 봉사이다. 너희들은 공여자의 자녀들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러니 공여자의 자녀들, 축복의 공여자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축복의 힘과 이 지식을 기부하는 힘으로 거지 영혼들을 번영하게 만들어라. 오늘 이 날, 행운의 공여자이며 축복의 공여자인 분의 자녀들은 거지 영혼들에게 자비심을 느껴야 한다. 마야와 세상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영혼들에게 머리 숙여 절한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등잔에 불을 켠다. 등잔에 불을 밝힐 때, 그들은 반드시 고개 숙여 절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점화된 등잔인 영혼들에 대한 이 기념비가 영원한 것이다. 사람들이 불꺼진 등잔에는 고개 숙여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불켜진 등불로 지내라. 심지어 밥다다도 그런 영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앗챠.

마하라쉬트라 지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아비약트 밥다다의 고귀한 말씀 **(2012**년 **3**월 **20**일**).**

이 지구의 숫자도 역시 크다. 그 이름 자체가 마하라쉬트라이고, 따라서 그것은 클 것이다. 그 이름처럼 숫자도 또한 크다. 밥다다는 봄베이와 델리가 한 가지에 대해 열의와 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은 봉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잘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밥다다는 델리와 봄베이가 너희와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영혼들 중에서 마이크가 될 수 있고, 그런 다음 또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찾길 바란다. 그런 그룹을 찾아라, 왜냐하면 모든 봉사분야(Wing)가 대부분 밥다다에게 명단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바바는 그 명단을 보았다. 그 명단에는 바바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좋은 이름들이 있다. 이제 그들을 드러내라. 너희들 대신에 그들이 강의를 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들의 지식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나눠야 한다.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그들이 말해야 한다. 너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경험담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행사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밥다다가 받아본 명단에는 그런 가치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실, 모든 봉사분야가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가족과 아버지 앞에 가져와야 한다. 봉사분야들이 이 일을 했다. 밥다다는 너희가 이 일을 한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뭔가 새로움을 가져와라. 새로움은 너희가 상속자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최소한 너희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관계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그들이 봉사에 관여해야 한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와 가족의 동반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일도 일어나야 한다. 밥다다는 만일 브라민들이 함께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달성된 일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모든 이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밥다다는 너희가 그런 마이크 자질을 가진 자녀들의 집회를 열길 바란다. 그들이 바바를 만나러 마두반에 오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그들이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봉사에 새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앗챠.

밥다다에게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소망이 더 있다. 그것은 모든 지구(zone)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센터들이 그들의 센터에 장애가 없고, 조화롭다는 좋은 소식을 보내와야 한다. 바바의 모든 자녀들이 정확하고, 봉사에 바쁘게 몰두하고, 장애가 없다는 소식이 아직 어떤 지구에서도 오지 않았다. 따라서 마하라시트라는 큰 과업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어떤 지구도 아직 이런 좋은 소식을 보내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달리 누가 그렇게 되겠느냐? 너희들의 타파샤도 대단하다. 선생들이든 학생들이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희들 각자는 위대한 영혼이다.

이제 좀 보아라: 약간만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모든 이들이 너희의 살아 있지 않은 형상을 보는 것처럼, 순수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 있는 여신과 신인들의 형태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이가 아주 훌륭한 봉사를 했다. 밥다다는 그에 대해 너희들을 축하한다.

축복**:** 신성한 미덕들을 불러내어 모든 약점을 다 끝냄으로써, 신성한 미덕들을 가진 이가 되어라.

디파발리 때 슈리 락쉬미를 불러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 자녀들은 내면에서 신성한 미덕들을 불러내어, 약점들의 자손들을 모두 끝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새로운 산스카라의 형태로 새로운 의상을 입을 것이다. 오래된 의상들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의 사랑도 없게 해라. 어떤 약점, 결함, 힘의 결여, 미묘한 성질의 그 어떤 흔적이 남아 있든, 그 모든 오래된 잔고들을 오늘 전부 다 영원히 끝내고, 신성한 미덕들을 가진 이가 되어라. 그러면 미래에 대관식이 거행될 것이다. 디파발리는 바로 그것의 기념비이다.

슬로건**:** 자아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을 조언자로 삼아서, 너희에게 협조하게 만들어라.

******* 옴 샨티 **O M S H A N T I *****

아비약트 신호 **-** 아버지 브라마와 같은 완전하고 완벽한 단계를 경험해라**:** 만일 “빈두(점)”와 “신두(대양)”라는 단 두 단어만 기억한다면, 너희는 쉽게 완벽하게 될 수 있다. 하나의 점과 한결같은 단계를 기억하며, 한 분의 지시를 따르고, 한 분의 과업에서 조력자가 되어라. 단지 점과 한 분만 있게 해라,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어떤 확장 속으로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 만일 확장 속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면, 오직 봉사를 위해서만 그렇게 해라. 그 이상으로 너희의 지각을 쓸 필요는 없다.